

한국의 근대 신어사전 비교 분석  
- 『현대신어석의(1922)』와 『신어사전(1934)』을 중심으로-

린 위레악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현대신어석의』의 분석
  - 2.2. 『신어사전』의 분석
3. 『현대신어석』와 『신어사전』의 비교 분석
4. 결론.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 근대의 신생 어휘들을 수록한 『현대신어석의(現代新語釋義)』와 『신어사전(新語事典)』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 초기 신어사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신어석의』는 1922년에 문창사(文昌社)에서 최록동에 의해 간행된 신어 자료집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 126mm, 세로 184mm이며 총 66면으로 되어 있다. 『현대신어석의』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근대 신어 자료집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734여 개의 당대 신어 목록과 그에 대한 뜻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신어사전』은 1934년 10월 청년조선사에서 『청년조선』 창간호의 별책 부록으로 펴낸 것으로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0cm이며 총 108면으로 되어 있다. 수록된 신어의 규모는 『현대신어석의』와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까지 비교 검토된 적이 없다. 각 자료집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신생 어휘를 당대인의 관점에서 추출하고 정리한 것으로, 어휘적 변화가 극심했던 20세기 초의 어휘의 역동적 변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을 이루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준하여 두 사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거시구조의 차원에서는 표제어 구성을 분석할 것이다. 어떠한 단어들이 표제어로 실려 있는지, 그 목록은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의 설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표제어 어종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미시구조의 차원에서는 뜻풀이 메타술어의 특징,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약어 등 참고 정보의 기술 양상, 용례 정보 등을 분석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 근대, 현대신어석의, 신어사전, 거시구조, 미시구조

1. 서론

『현대신어석의』는 1922년에 문창사(文昌社)에서 최연택(崔演澤)에 의해 편찬된 신어 자료집이다. 한국의 근대 신어 자료집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림과학원 편(2010)의 영인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책의 크기는 가로 126mm, 세로 184mm이며 총 66면으로 되어 있고 가나다 순서에 따른 13개 향으로 표제어들을 제시하였다.<sup>1</sup> 책의 표제어 수는 734개로 되어 있다.

한편, 『신어사전』은 1934년 10월 청년조선사에서 『청년조선』 창간호의 별책 부록으로 펴낸 것으로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0cm이며 총 108면으로 되어 있다(박형익 2004). 이 책은 가나다 순서에 따른 14개 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어 수는 713개로 되어 앞서 살펴본 『현대신어석의』와 유사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수록된 신어의 규모는 『현대신어석의』와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까지 비교 검토된 적이 없다. 각 자료집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신생 어휘를 당대인의 관점에서 추출하고 정리한 것으로, 어휘적 변화가 극심했던 20세기 초의 어휘의 역동적 변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현대신어석의』와 『신어사전』에 대한 사전학 연구로 일차적인 관심사는 두 사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대 초기 신어사전의 영향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전학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전을 우리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대하여 두 사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구조 차원에서는 표제어 선정 기준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어떠한 단어들이 표제어로 실려 있는지, 그 목은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의 설정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인지 표제어 어종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편, 미시구조 차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보통 현대의 국어사전들은 머리말이나 일러두기에서 사전의 미시구조 항목들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근대의 신어사전들에는 이러한 별도의 설명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사전의 미시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두 사전은 현대의 국어사전들과 달리 미시구조의 각 정보들을 별도의 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뜻풀이 내에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구조의 차원에서는 뜻풀이 메타술어의 특징, 유의어, 메타술어의 특징,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약어 등 참고 정보의 기술 양상, 용례 정보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근대의 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신어석의』와 『신어사전』은 당대의 신어 자료집 목록에 종종 언급되어 오긴 했지만 해당 사전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조남호(2003)에서는 『현대신어석의』의 편찬 동기, 표제어의 수, 표제어의 품사 및 형태론적 특징, 배열순서, 뜻풀이 방식 등을 살펴보고 두러진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제어들 중 상당수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한국 최초의 신어 자료집으로서 『현대신어석의』가 갖는 자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서혜진(2017)에서는 역시 『현대신어석의』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특징을 밝혔고, 특히 표제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음절수에 따라 2음절어부터 6음절어까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전 9종의 표제어를 『현대신어석의』의 표제어들과 비교하여 정착어와 사멸어를 분류하였다. 조남호(2003)와 서혜진(2017)의 검토를 통해 『현대신어석의』의 자료적 특징이

---

<sup>1</sup> 『현대신어사전』에 실린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지만 '카' 향이 빠졌다. 이는 표제어가 한 자어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자어 형태소 중 'ㅋ'로 시작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카' 향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서혜진(2017:16)을 참고할 수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연구는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되 해당 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계량화 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전의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한다. 본고는 『현대신어석의』를 20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신어사전』과 비교하여 신어 자료집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갖는다.

김한샘(2014)에서는 『신어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본 뒤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비교를 통해 『신어사전』 수록 어휘들이 현대어에서 정착한 양상을 ‘어휘소멸, 어휘의미전이, 어휘의미확대’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한샘(2014)의 검토를 통해 『신어사전』의 사전학적인 특징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계량화 작업을 통해 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상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더불어 미시구조 정보 중 앞선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뜻풀이 메타술어, 참고어 정보, 문법 범주 정보, 어종 정보 등의 항목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김한샘(2014)의 경우는 『신어사전』의 표제어를 20세기 후반 사전들과 직접 비교하여 근대에서 현대로의 의미 변화 과정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반면, 본고는 『현대신어석의』를 그 이전에 편찬된 『신어사전』과 비교하여 근대 신어사전들 간의 영향 관계를 살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2. 본론

### 2.1. 『현대신어석의』의 분석

#### 2.1.1 『현대신어석의』 거시구조 분석

##### 2.1.1.1. 주표제어와 가표제어

『현대신어석의』의 표제어는 크게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표제어는 사전에서 독자적인 표제어로서, 뜻풀이, 발음, 어원, 용법 등 제반 정보를 갖추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뜻풀이다. 가표제어는 표제어와 같이 발음, 어원, 뜻풀이, 문법 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지만 다른 표제어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의 표제어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현대신어석의』의 주표제어와 가표제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현대신어석의』 수록 주표제어와 가표제어

표제어 종류	수	비율
주표제어	671	91.42%
가표제어	63	8.58%

<sup>2</sup> 홍종선 외(2009:171)에서 ‘임시 표제어’라는 용어를 썼다. 해당 표제어의 의미를 직접 풀이를 하지 않고 다른 표제어로 대신할 때 그 중간 단계의 역할만을 하는 표제어를 말한다. 가표제어라고도 한다. 보통 뜻풀이 대신 화살표 등의 약물을 통해 품사나 간단한 참고 관계만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표준어나 동의어, 이형태 따위를 제시할 때 쓰인다.

합계	734	100%
----	-----	------

<표 1>을 토대로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734개 표제어 중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의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주표제어는 671개 91.42%이며 가표제어는 63개로 8.58%를 차지하고 있다.

### 1). 주표제어

『현대신어석의』는 주표제어에 단어 단위와 구 단위까지 등재되어 있는데 각각 비중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대신어석의』 수록 주표제어의 구 단위

단위		수	비율
단어		580	86.43%
구	N^N	69	10.28%
	N적^N <sup>3</sup>	19	2.83%
	N의 N <sup>4</sup>	3	0.44%
합계	671		100%

위에서 보여준 <표 2>와 같이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671개 주표제어 중에 단어 단위에 속한 표제어는 580개로 86.43%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신어석의』의 단어 단위 표제어는 일반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

<sup>3</sup> 『현대신어석의』에서 등재한 ‘-적’으로 끝나는 구 표제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공황(經濟的恐慌), 계통적 발생(系統的發生), 공간적 예술(空間的藝術), 국민적 외교(國民的外交), 기계적 세계관(機械的世界觀), 민주적 경향(民主的傾向), 의미적 감정(義美的感情), 미적 쾌감(美的快感), 미적 생활(美的生活), 보수적 사회개량주의(保守的社會改良主義), 본능적 생활(本能的生活), 사회적 자살(社會的自殺), 사회적 감정(社會的感情) 사회적 생활(社會的生活), 시간적 예술(時間的藝術), 예술적 양심(藝術的良心), 인종적 차별(人種的差別), 인종적 편견(人種的偏見), 전적 생활(全的生活)

<sup>4</sup>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N의 N’ 구 표제어는 ‘과학의 파산(科學의 破産), 생의 충돌(生의 衝動), 성의 문제(性的 問題)’ 들이다.

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현대신어석의』의 구 표제어는 ‘N^N’, ‘N-적’, ‘N의 N’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서 여기서 구 표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구 표제어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표제어를 확인한 결과에 품사 정보가 없는 표제어는 합성어가 아닌 구로 처리할 것이다. 『현대신어석의』에서는 표제어들이 모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의 표제어 ‘경제적 공황(經濟的 恐慌), 계통적 발생(系統的 發生)’<sup>5</sup>처럼 접미사 ‘-적’으로 끝나는 관형사와 이의 수식을 받는 것들이 있으며, ‘과학의 파산(科學的 破産)’처럼 관형격 조사 ‘N의 N’를 사용하여 표제어를 수록하였다. 이들을 합성어가 아닌 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표제어 중에 ‘N^N’는 69개로 10.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N-적’는 19개로 2.83%를 차지하며 ‘N의 N’는 3개로 0.4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가표제어

『현대신어석의』에 실린 가표제어를 살펴보면 가표제어는 뜻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참고 정보 외의 다른 미시구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표제어 중에 구 표제어를 등재한 경우가 있다. 63개로 등재된 가표제어 중에 구 단위로 등재된 가표제어는 ‘공중적 쾌락(公衆的 快樂)’, ‘국민 외교(國民外交)’, ‘규범 과학(規範科學)’ 3개로 등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단위로 등재한 가표제어를 살펴보면 다음<표 3>과 같다.

<표 3> 『현대신어석의』의 구 단위로 등재한 주표제어와 가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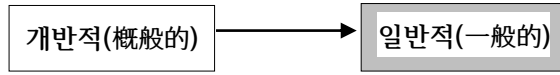
단위	수	비율
단어	61	95.31%
구	3	4.68%
합계	64	100%

위에 보여준 <표 3>와 같이 가표제어 64개 중에 단어 단위는 61개로 95.31%를 차지하고 구 단위는 3개로 4.6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대신어석의』의 주표제어와 가표제어를 일반적으로 등재하고 있지만 가표제어의 주표제어를 일부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살펴볼 것이다. 한 예로, ‘개반적(概般的)’의 경우는 ‘일반적(一般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현대신어석의』에는 ‘일반적(一般的)’이라는 표제어를 등재하지 않아 그 뜻을 찾을 수가 없다.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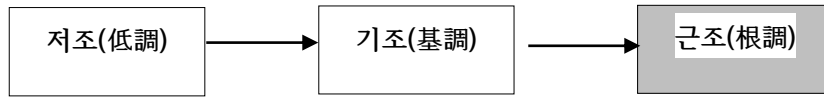
<sup>5</sup> 원문에는 구 표제어를 띄어 쓰지 않지만 본고는 구 표제어를 띄어 쓸 것이다.

<그림 1> 『현대신어석의』 미등재 주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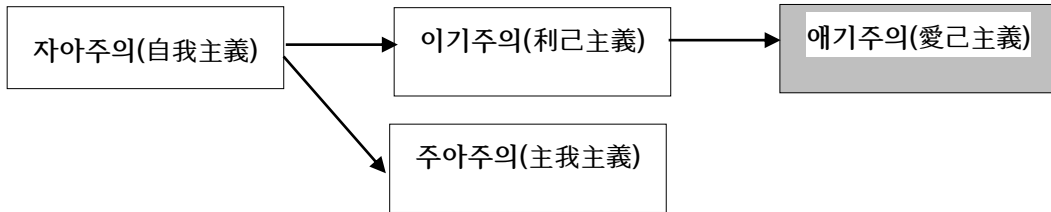
한편, 『현대신어석의』에서는 가표제어를 제시할 때 2단계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가표제어 2단계 구조를 살펴보면 『현대신어석의』에 실린 가표제어가 주표제어를 제공하지 않고 가표제어를 다시 제시하여 그 표제어를 다시 찾아야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저조(低調)’의 경우는 ‘基調와 同義’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조(基調)’의 경우는 뜻풀이하지 않고 ‘근조(根調)’와 같은 뜻으로 ‘근조(根調)’의 뜻을 찾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조(低調)’와 ‘기조(基調)’는 각각 가표제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현대신어석의』 가표제어 2단계 구조



또한, 가표제어가 다의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2단계로 제시하는 것과 순환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단계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현대신어석의』 가표제어 2단계 다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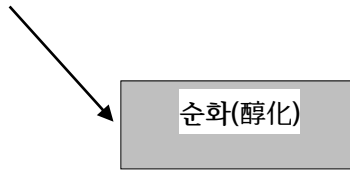


위에서 밝힌 <그림 3>과 같이 ‘자아주의(自我主義)’는 다의어인 ‘이기주의(利己主義)’와 ‘주아주의(主我主義)’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기주의(利己主義)’는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애기주의(愛己主義)’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해당 표제어를 찾아 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아주의(自我主義)’와 ‘이기주의(利己主義)’는 모두가표제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아주의(主我主義)’의 경우는 『현대신어석의』에서 수록하지 않아 찾아 볼 수 없다.

이어서 순환적으로 제시하는 가표제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현대신어석의』 순환적인 가표제어





위에서 제시한 <그림 4>와 같은 '사상화(思想化)'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제어를 뜻풀이하지 않고 다의어인 '상화(想化)', '순화(醇化)'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화(想化)'의 경우는 순환적으로 '思想化와 同義'을 풀이해서 이를 다시 가표제어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순화(醇化)'의 경우는 뜻풀이가 되어 있으니 주표제어로 볼 수 있다.

## 2.1.2. 『현대신어석의』 미시구조 분석

### 2.1.2.1. 뜻풀이 메타술어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는 사전의 미시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 이용의 주된 목적이 표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뜻풀이는 기본적으로 표제어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지만 현대 사전들의 경우 표제어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뜻풀이 양식을 적용하고 있다. 뜻풀이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상의 일정한 구조를 뜻풀이 메타술어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은 표제어의 품사에 맞추어 뜻풀이의 종결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명사는 명사형으로, 부사는 부사형으로, 동사는 동사형으로, 형용사는 형용사형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사전학적 방법론이 정립되기 이전에 편찬된 『현대신어석의』의 경우 오늘날의 사전처럼 일정한 뜻풀이 메타술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별 표제어마다 완전히 제각각의 풀이 방식을 취했던 것만도 아니다. 이 절에서는 『현대신어석의』가 표제어의 뜻풀이 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뜻풀이 메타술어 분석을 통해 그 대략의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신어석의』의 표제어는 모두 명사였다. 오늘날이라면 명사는 명사로 뜻풀이하는 것이 사전학적 원칙이지만 『현대신어석의』의 뜻풀이를 보면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뜻풀이 메타술어의 종결형식에 따라 『현대신어석의』의 뜻풀이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현대신어석의』의 뜻풀이 메타술어의 종결형식 분류

분류	종결형식	빈도	비율
명사형 (78.9%)	일반명사	332	49.4%
	의존명사(것, 者)	142	21.1%
	명사형어미(-음)	56	8.3%
지정사형 (12.6%)	의존명사+이다	7	1.0%
	명사형어미(-음)+이다	78	11.6%

동사형(8.34%)	56	8.3%
합계	671 <sup>6</sup>	100%

<표 14>를 토대로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표제어의 뜻풀이 메타술어의 종결 형식을 ‘명사형’, ‘지정사형’, ‘동사형’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각각 비율을 살펴보았다. 『현대신어석의』에서 표제어를 풀이할 때 뜻풀이를 단순화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긴 뜻풀이의 경우에는 표제어의 의미에 관련성이 많은 부분을 뜻풀이로 처리하고 뒤에 오는 보충설명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처리할 것이다.<sup>7</sup>

위에 제시된 표를 살펴본 결과 명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는 530개로 78.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명사형 중에서 나타난 뜻풀이 종결형식은 대부분 일반명사이지만, 의존명사(것, 者)와 명사형어미(-음)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정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의 85개로 1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정사형 중에 ‘의존명사+이다’와 ‘명사형어미(-음)+이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신어석의』에서 동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는 56개로 8.3%를 차지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신어석의』의 뜻풀이를 보면 명사는 명사형으로 끝난 것이 일반적이지만

<sup>6</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신어석의』의 표제어는 크게 주표제어와 가표제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주표제어는 사전에서 주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이다. 가표제어는 전체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표제어로 이동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의 표제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뜻풀이 분석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주표제어의 뜻풀이에 대해만 분석할 것이다.

<sup>7</sup> “ [器官] 動植物體의種生活作用을分擔ᄃᆞ는局所의稱이니分ᄃᆞ야그로ᄃᆞ야運動及感覺에屬ᄃᆞ는者를動物性器官이라고云ᄃᆞ며營業及生殖에屬ᄃᆞ는者植物性器官이라고云ᄃᆞ는니라”

위에 제시한 (1)의 뜻풀이에 대해 살펴보면 밑줄 부분을 보듯이 “동식물체의 각종 생활작용을 부담하는 국소를 칭하니...”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밑줄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구분하여 운동 및 감각에 속하는 것을 동물성 기관이라고 하며, 영업 및 생식에 속한 것을 식물성 기관이라 한다”라고 설명된 것은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가 아니고 참조 항목 제시로 풀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종결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대신어석의』에 수록된 표제어의 뜻풀이 종결형식, 즉 명사형, 지정사형, 동사형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명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명사형의 종결형식 중에 일반 명사, '의존명사(것, 者)', '명사형어미(-음)'가 있는데 먼저 일반명사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는 아래의 (1)과 같다.

(1)

- 가. [可能性] 可히遂得<sup>ㅎ</sup> · 기전에能<sup>ㅎ</sup> · 르만<sup>ㅎ</sup> · ㄴ量事體의性質
- 나. [架空線] 電器鐵道에서電器를送<sup>ㅎ</sup> · 기為<sup>ㅎ</sup> · 야空中에架設<sup>ㅎ</sup> · ㄴ銅線
- 다. [可覺的] 吾人이感覺<sup>ㅎ</sup> · 야得홀만<sup>ㅎ</sup> · 다는語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뜻풀이 종결형식을 보면 명사형은 일반명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에 보여준 '가'의 뜻풀이를 보면 '명사의 명사'의 뜻풀이가 종결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다'의 뜻풀이를 통해 볼 때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의 형식으로 표제어를 뜻풀이로 종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일반명사로 뜻풀이 종결할 때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명사의 명사'와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발견할 수 있는 뜻풀이 종결형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명사는 '의존명사(것, 者)'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2)와 같다.

(2)

- 가. [假面的] 內心에應치아<sup>ㅎ</sup> · 는外面으로만假裝<sup>ㅎ</sup> · 는것
- 나. [高級] 低級又是下級の反對語니高等又是上等이한意又是俸給의等級이高<sup>ㅎ</sup> · ㄴ者

위에서 제시한 (2)와 같이 뜻풀이 종결형식을 보면 명사는 '의존명사(것, 者)'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위에 보여준 예의 뜻풀이를 볼 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는 명사 중 어휘적 의미를 나타낸 의존명사(것, 者)를 사용하여 뜻풀이를 종결하고 있다. (2)에서 제시한 '가'의 뜻풀이를 볼 때 '~용언의 관형사형 + 것'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뜻풀이를 볼 때 용언의 관형사형과 한자로 된 의존명사 '者'를 결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용언의 관형사형 + 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신어석의』에서 명사는 '명사형어미(-음)'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3)과 같다.

(3)

- 가. [簡易保險] 一般中流以下の階級을標準으로<sup>ㅎ</sup> · 야簡易<sup>ㅎ</sup> · ㄴ方法小口生命保險設置<sup>ㅎ</sup> · 는것을謂<sup>ㅎ</sup> · ㄴ
- 나. [官憲] 官廳官署의事를云<sup>ㅎ</sup> · ㄴ

위에 제시한 (3)과 같은 뜻풀이 종결형식에 대해 살펴볼 때 명사는 명사형어미(-음)로 나타나고 있다. (3)에서 제시한 예의 뜻풀이를 통해 볼 때, ‘가’의 경우는 ‘謂ㅎ·다’라는 발화 동사와 명사형어미‘-음’을 결합해 뜻풀이를 종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뜻풀이를 볼 때 발화 동사인 ‘云ㅎ·다’와 명사형어미‘-음’을 결합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신어석의』에서 명사를 명사형어미(-음)으로 뜻풀이 종결할 때 대부분 두 가지 발화 동사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謂ㅎ·다+(-음)’과 ‘云ㅎ·다+(-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지정사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명사는 명사형으로 뜻풀이가 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명사형으로 뜻풀이 된 경우는 일반명사, ‘의존명사(것, 者)’, ‘명사형어미(-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신어석의』의 뜻풀이를 표면적으로 놓고 볼 때 현대 국어사전의 원칙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여주지 않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신어석의』에서 표제어를 풀이할 때 많은 부분이 명사형으로 종결되어 있어 메타술어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명사는 지정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명사는 지정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다’와 ‘명사형어미(-음)+이다’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사를 ‘의존명사+이다’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4)와 같다.

(4)

가. [ 想念 ] 意識에印象된事物의念心의生活의大部分은其種々變化離合에不外  
ㅎ·ㄴ것이니라  
나. [ 新理想主義 ] 從來의理想主義는動輒理想에偏ㅎ·야現實을全히顧치아니  
ㅎ·는弊에陷ㅎ·는것이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는 의존명사 뒤에 ‘이니라’를 연결하여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의존명사와 ‘이라’를 합하여 기술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다음에 명사는 ‘명사형어미(-음)+이다’의 형식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5)와 같다.

(5)

가. [ 盲從 ] 盲人이黑白을辯치못ㅎ·는것과如히事의是非善惡에不拘ㅎ·고人의行為에追從ㅎ·는것을謂ㅎ·ㄹ이니라  
나. [ 文藝批評 ] 文藝의作品並히作家에對ㅎ·ㄴ批評을云ㅎ·ㄹ이니라  
다. [ 未知數 ] 既知數의對ㅎ·ㄴ語、元來數學上의言인ㄷ·이아즉知피치못ㅎ·는數를云ㅎ·ㄹ이라  
라. [ 不逞 ] 不平不滿의意現今은專히反國家의行動을為ㅎ·는者를云ㅎ·ㄹㄴ·니라

위에 제시한 (5)와 같이 뜻풀이 종결형식이 명사를 '명사형어미+이다'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5)의 예를 볼 때, 먼저 '謂ㅎ·다', '云ㅎ·다' 두 가지의 발화 동사를 명사형어미(-음)을 결합한 후 '이다'를 뒤에 붙여 명사의 뜻풀이를 종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발화 동사'謂ㅎ·다', '云ㅎ·다') + (명사형어미 '-음')+ '이니라, 이라'에 대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4)와 (5)를 살펴본 결과 『현대신어석의』에서 명사를 지정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를 볼 때 명사를 지정한 뒤에 (이다)로 끝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는 동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6)과 같다.

(6)

가. [共鳴] 互相理解ㅎ·ㄴ 程度의同感又は贊成의意味로一般히用ㅎ·ㄴ·니라

나. [硬文學] 小説美文等を軟文學이라云ㅎ·며評論論說等의文章을硬文學이라云ㅎ·ㄴ·니라

다. [近代思想] 佛蘭西革命으로부터約一世紀이間에歐洲思想界에大變動이起ㅎ·얏ㅎ·ㅎ·ㄴ 此變動의思想을近代思想이라고云ㅎ·며又近代精神近代主義라고도云ㅎ·ㄴ·니라所謂自由平等主義個人主義唯物主義又科學的厭世的懷疑的等其特徵이니라

라. [田園生活] 都會生活에對ㅎ·ㄴ 話鄉曲의生活을田園生活이라稱ㅎ·ㄴ·니라

마. [批判] 批評은單히事物의善惡長短을第三者로서言明ㅎ·는者이니·更히研究考察을

加ㅎ·야十分其批評을為ㅎ·ㄴ 後에或은判斷을下ㅎ·는것을批判이라云ㅎ·ㄴ·니라

위에서 나타난 명사는 동사형으로 뜻풀이 종결됨을 보여준다. '가'의 뜻풀이를 볼 때 '用ㅎ·ㄴ·니라'의 동사형으로 풀이한 예이다. '가'의 뜻풀이를 보면 '~의 의미로 사용하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신어석의』에서 일반동사로 뜻풀이가 종결된 경우 '用ㅎ·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는 동사형으로 뜻풀이가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어사전의 뜻풀이 메타술어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의 의미에 사용하다, ~에 사용하다'의 형식을 사용하여 명사를 지정한 후 '用ㅎ·다' 사용한다는 점에서 뜻풀이 메타술어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부터 '마'까지 일반동사가 아닌 '稱ㅎ·다, 云ㅎ·다' 두 가지의 발화동사를 사용하여 뜻풀이를 기술했다. 위에 제시한 예를 보면 명사인 '硬文學, 近代思想, 田園生活, 批判'를 선정한 후 발화 동사인 '云ㅎ·다, 稱ㅎ·다' 사용하여 명사를 지정한 후 뜻풀이로 종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신어석의』에서 수록된 표제어의 뜻풀이 메타술어를 분석한 작업에서 확인된 것은 표제어의 뜻풀이가 종결형식은 명사형으로 된 것이 아닌 지정사형과 동사형으로 된 경우도 있다. 명사는 명사형이 아닌 다른 품사, 즉 지정사형과 동사형으로 뜻풀이 종결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사는 지정사형으로 끝난 경

우에 살펴본 결과 명사를 지정한 뒤에 (이다)로 끝난다는 점에서 보면 명사는 명사형으로 풀이된 현대 국어사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는 동사형으로 끝난 경우를 살펴본 결과를 얻어 일반 동사‘用ㄹ·다’ 사용해 메타술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 의미에 사용하다’, ‘~에 사용하다’의 형식을 사용하여 명사를 지정한 후 사용하기 때문에 동사형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사를 지정한 후 ‘用ㄹ·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뜻풀이 메타술어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동사형으로 종결된 경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대신어석의』에서 대부분 발화 동사인 ‘稱ㄹ·다, 云ㄹ·다’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명사를 지정한 뒤 ‘稱ㄹ·다, 云ㄹ·다’라는 발화 동사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사전 뜻풀이 메타술어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신어석의』에서 표제어를 풀이할 때 대부분 발화에 관련된 명사나 발화에 관련된 동사를 많이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발화 명사를 한 예로 살펴보면 아래의 (7)과 같다.

(7)

가. [可覺的] 吾人이感覺ㄹ·야得홀만 ㄹ·다는語

나. [象牙塔] 近代의無趣味ㄹ·ㄴ物質的의生活의不快를避ㄹ·야自己의詩的의別天地에隱ㄹ·야豊麗ㄹ·ㄴ詩味를嘗ㄹ·고纖細ㄹ·ㄴ感情에生코저ㄹ·는藝術的의別天地의稱

위에서 제시한 (7)과 같이 『현대신어석의』에서 발화 명사를 뜻풀이 종결형으로 한 경우에 ‘語, 稱’ 두 가지의 발화 명사가 있다. (8)에서 제시한 ‘가’의 뜻풀이를 보면 발화 명사인 ‘語’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발화 명사 ‘語’으로 끝난 경우를 살펴볼 때 대부분 ‘~용언의 관형사형+ 語’의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뜻풀이를 보면 발화 명사인 ‘稱’을 사용하여 뜻풀이를 종결하고 있으며, ‘稱’으로 끝난 경우는 대부분 ‘~의 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서 발화 동사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8)과 같다.

(8)

가. [官憲] 官廳官署의事를 云ㄹ·ㄴ

나. [簡易保險] 一般中流以下의階級을標準으로ㄹ·야簡易ㄹ·ㄴ方法小口生命保險設置ㄹ·는것을 謂ㄹ·ㄴ

다. [因襲] 又是因襲이라고云ㄹ·ㄴ·니라古來부터傳ㄹ·ㄴ道德典禮儀式習慣等을 指ㄹ·ㄴ이라.

라. [反證] 엇든事實은眞實ㄹ·다고證明ㄹ·ㄴ證據가眞實이안은것을證ㄹ·ㄴ證據를 云ㄹ·ㄴ이니라

마. [美的生活] 本能又是情感을滿足케ㄹ·는것을美로ㄹ·야美를人生唯一의目的으로ㄹ·는生活을 謂ㄹ·ㄴ이니라

바. [硬文學] 小說美文等을軟文學이라云ㄹ·며評論論說等의文章을硬文學이라 云ㄹ·ㄴ·니라

사. [ 田園生活 ] 都會生活에對<sup>ㅎ</sup>·<sup>ㄴ</sup>話鄉曲의生活을田園生活이라稱<sup>ㅎ</sup>·<sup>ㄴ</sup>·  
니라

위에 보여준 예의 뜻을 통해 볼 때, 『현대신어석의』에서 뜻을 종결할 때 대부분 발화 명사나 발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8)에서 뜻풀이 종결형식을 보면 『현대신어석의』에서 뜻을 할 때 ‘云<sup>ㅎ</sup>·<sup>ㄴ</sup>, 謂<sup>ㅎ</sup>·<sup>ㄴ</sup>, 云<sup>ㅎ</sup>·<sup>ㄴ</sup>이니라, 謂<sup>ㅎ</sup>·<sup>ㄴ</sup>이니라, 指<sup>ㅎ</sup>·<sup>ㄴ</sup>이라. 云<sup>ㅎ</sup>·<sup>ㄴ</sup>·니라, 稱<sup>ㅎ</sup>·<sup>ㄴ</sup>·니라’ 여러 형식을 뜻풀이로 종결하고 있는데 ‘云<sup>ㅎ</sup>·다, 謂<sup>ㅎ</sup>·다, 稱<sup>ㅎ</sup>·다, 指<sup>ㅎ</sup>·다’ 4가지의 발화 동사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을 기술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면, ‘가’와 ‘나’에서 제시한 뜻풀이의 경우는 명사형어미(-음)으로 뜻풀이를 종결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형어미(-음)으로 끝난 경우는 대부분 ‘謂<sup>ㅎ</sup>·다’와 ‘云<sup>ㅎ</sup>·다’의 두 가지 발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명사형어미를 결합하여 뜻풀이 종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화 명사가 아닌 발화 동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와 ‘라’와 ‘마’의 뜻풀이 종결형식을 보면 발화 동사와 ‘이다’를 결합하여 지정사형으로 뜻풀이를 종결하고 있으며, ‘바’와 ‘사’의 뜻풀이 종결형식의 경우는 다른 문법 요소를 결합하지 않고 발화에 관련된 동사만을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을 하고 있다.

이상으로, 『현대신어석의』에서 ‘語’와 ‘稱’의 두 가지 발화 명사를 사용하고 ‘云<sup>ㅎ</sup>·다, 謂<sup>ㅎ</sup>·다, 稱<sup>ㅎ</sup>·다, 指<sup>ㅎ</sup>·다’의 네 가지 발화 동사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량화 작업을 통해 발화 명사와 발화 동사의 빈도를 살펴보겠다. 발화 명사와 발화 동사의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발화 명사와 발화 동사의 빈도

분류	유형	빈도	비율
발화 명사	語	9	5.4%
	稱	2	1.2%
발화 동사	云 <sup>ㅎ</sup> 다	133	80.6%
	謂 <sup>ㅎ</sup> 다	14	8.4%
	稱 <sup>ㅎ</sup> 다	5	3.0%
	指 <sup>ㅎ</sup> 다	2	1.2%
합계		165	100%

위의 <표 15>를 제시한 바와 같이 『현대신어석의』에서 뜻을 풀이할 때 ‘語, 稱’이라는 두 가지의 발화에 관련된 명사와 ‘云<sup>ㅎ</sup>·다, 謂<sup>ㅎ</sup>·다, 稱<sup>ㅎ</sup>·다, 指<sup>ㅎ</sup>·다’라는 네 가지 발화에 관련된 동사를 사용하여 기술했고 있다. 발화 명사와 발화 동사

를 세어 살펴본 결과를 얻어 165개가 나타났다. 발화 명사는 11개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중에 '語'로 끝난 경우는 9개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稱'로 끝난 경우는 2개로 1.2%를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발화 동사의 경우는 154개를 사용하여 뜻풀이 종결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중에 '云ㅎ·다'로 끝난 경우는 133개로 80.6%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謂ㅎ·다'의 경우는 14개를 8.4%를 차지하며 '稱ㅎ·다'의 경우는 5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指ㅎ·다'의 경우는 2개를 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다.